오늘의 날씨와 생활

8월 1일 목요일 음 7월 1일 (8물)

기상정보

구름 많음

제주도는 맑고 구름 많은 날씨가 되겠다. 오후에는 산지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아침 기온은 25~26℃, 낮 최고 기온은 29~32℃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1.0m로 일겠다.

오 전	강 수 확 률	오 후
0%	제 주	20%
20%	성 산	20%
0%	고 산	20%
0%	서귀포	20%

	해뜸 05:46 / 해짐 19:34	달뜸 05:29 / 달짐 19:53
물때	만조 10:22 / 23:23	간조 05:12 / 17:01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구름 많음	25/31℃
모레	구름 많음	25/32℃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관심	매우 높음

월드뉴스

美언론 "北미사일, 미국에 보내는 압박"

일주일새 두 번째 발사

미국의 주요 언론은 한국시간 31일 이뤄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최근 일주일 사이에 이뤄진 두 번째 발사라는 점에 주목하며 일제히 관련 소식을 신속 보도했다. 북한의 의도와 관련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을 압박하려는 메시지라는 분석이 우세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에 평양의 두 번째 무기 시험"이라면서 "김정은 정권은 핵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국에 대한 압력을 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깜짝 회동'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공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잇단 미사일 시험의 배경으로 짚었다.

지난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뉴욕타임스(NYT)도 "일주일도 안 돼 두 번째로 무기 시험을 한 것"이라면서 "북한의 무기 시험 재개는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 재개 노력이 중단된 가운데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NYT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북한의 최근 단거리 무기 시험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장거리 미사일 시험으로 긴장을 고조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발사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을 계기로 고조됐던 낙관주의를 약화시킨 동시에 앞으로 놓인 과제를 부각한 셈"이라고 진단했다.

한라일보 제주의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용구 편집국장 김기현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 hl@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30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목요담론

평화는 평화로

김 경 미
제주특별자치도의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1조 2항은 주권재민(主權在民)을 담고 있다. 이처럼 주권은 국민, 영토와 함께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로, 국가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독립성을 가리키는 말로 국가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은 국민들에게 있다.

민주주의에서 국민 주권이 합법적으로 완성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행복한 삶을 원하는 국민들이, 그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권을 국가에게 위임하면서 피통치자의 위치로 전락하게 된다. 이것이 주권의 역설이다.

수잔 벅 모스의 '꿈의 세계와 파국'에서도 "20세기 말이라는 전망에서 제기되는 하나의 역설은 명백한 것처럼 보인다. 대중의 이름으로 통치하기를 요구하는 - 즉 급진적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 정치체제는 대중의 통치를 넘어서는 권력의 행사가 이루어지는 지대를 합법적으로 구성하는데, 그곳에서 공중의 응시와 독단적이고 절대적인 것은 베일에 가려지게 되었다."며 대중의 이름을 벗어난 통치의 권력이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역사를 보더라도 1947년 3·1절 6살 아이가 기마경찰의 말발굽에 깔리고 도망간 경찰을 쫓는 시위 군중에게 총을 발포하였고, 이를 계기로 도화된 제주의 4.3 항쟁은 빨갱이라는 굴레로 국가는 무차별적인 탄압과 살인을 자행하여 제주 인구의 10%인 3만명 정도가 희생되었다.

1980년 신군부 세력 퇴진과 계엄령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가 시작됐고, 광주시 전남대학교 앞에서 학생들과 계엄군이 충돌하여, 계엄군은 시위대와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시민이 희생되었다.

2006년 용산 4구역에서 총 30조원에 달하는 뉴타운이라는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주거세입자와 임차상인의 생존권 보장과 관련한 시위 도중 화재가 발생 6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을 입는 대참사가 일어났다.

2007년 국방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지역으로 강정으로 결정 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육지경찰까지 동원하여 민주적, 절차적 타당성 방해와 활동가 인권 침해 등 10년 동안 697명의 활동가가 체포, 연행 되었다.

물론 지난날을 반성하여 고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 차원 공식 사과로 2003년 10월 31일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4.3항쟁 당시 가해자인 국가권력을 대신해 피해자 유족들에게 사과하였다.

지난 주 경찰청장이 용산 참사와 제주 해군기지 관련 인권침해에 대하여 사과 했지만 피해자들은 "오늘의 사과로 수년에서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감당해야 했을 피해자들의 고통을 온전히 치유할 수는 없다"면서 "앞으로 이번 사과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사과의 진정성 증명은 인권유린의 진실과 강정주민, 평화 활동가들의 명예회복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아픈 역사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합법적 폭력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님을. 평화는 평화로 이루어져야 한다.

열린마당

청정제주, 시민의 손으로 미래세대까지

문 성 호
제주시 자치행정과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 등이 제주를 찾는 것은 제주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기쁜 일이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듯이 제주는 시름시름 앓아가고 있다.

관광객이 급증하는 만큼 배출되는 쓰레기 양 또한 크게 늘고 있으며 바쁜 사회생활 속 간편함을 위해 찾는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의 과다 사용은 제주의 쓰레기 문제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심화된 제주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청정한 제주 환경을 미래세대까지 물려주기 위해서는 시민의 동참이 절실한 상황이다.

어떠한 문제라도 시민이 공감하고 적극 참여한다면 해결해내지 못할 것이 있을까. 그것이 바로 시민의 힘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시민이 공감하는 정책은 어떻게 구상할 수 있을까? 제주시에서는 그 해답을 시민에게서 직접 찾아보기 위해 시민원탁회의를 개최한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시민이 스스로 정책을 만드는 '제3회 시민원탁회의'가 8월 24일 개최된다. 시민원탁회의는 공모를 통해 참가한 시민 모두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함으로써 시민이 생각하는 시정 정책을 도출하는 회의다.

이번 원탁회의에서는 관광객에 의한 쓰레기 문제, 일회용품 과다 사용 및 처리 문제에 대해 평소 시민들이 갖고 있었던 인식과 아이디어를 가감 없이 들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시민원탁회의에 참여할 토론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신청은 8월 14일까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접수, 팩스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청정제주를 미래세대까지 물려주기 위해 제주를 아끼고 사랑하는 열정적인 시민들이 많이 참석해 제주시민의 힘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본다.

올바른 야간 운항으로 제주 밤바다를 지키자

문 필 재
제주해양경찰서 한림파출소

매년 이 맘 때면 제주의 명물 한치를 잡으러 많은 도민들이 밤바다로 발걸음을 향한다. 그 중에서도 저마다 개인 소유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수상레저기구를 야간 운항에 이용할 때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꼭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야간운항장비를 갖춘 수상레저기구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야간운항장비에는 항해등, 나침반, 야간조난신호장비, 통신기기, 전등, 규명튜브, 소화기, 자기점화등, 위성항법장치, 등(燈)이 부착된 구명조끼 등 10가지가 있는데, 이 10가지를 모두 갖추어야만 야간운항이 가능하다. 나침반, 통신기기, 위성항법장치의 경우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스마트폰 어플로 대체 가능하며, 나머지 장비 역시 최근 증가하는 수요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다.

야간운항장비가 없는 수상레저기구를 밤바다의 다른 선박이 식별하기란 쉽지 않아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수상레저기구 사고의 대부분이 운항자의 부주의로 일어나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개인의 노력도 필요하다.

야간운항장비 없이 야간 수상레저활동을 할 경우 면허경고, 정지, 취소까지 될 수 있으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해양경찰에 단속 되는 경우도 빈번하니 자신의 안전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야간운항장비를 갖추어 안전한 제주의 밤바다를 만들어 나가자.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흙의 보약 "페르카칼슘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한번의 시비로 비료와 흙과 수분반응에 의한 농약성분
뿌리혹병, 잡초경감, 균핵병, 회색곰팡이병, 흑색썩음균핵병, 역병, 모잘록병, 시들음병, 달팽이사멸, 각따귀, 날파리류, 곰팡이병살균, 방제
페르카의 제반효과 비료대(평) 100-500원
N20 오랜 기간 지속되는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잡초의 경감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높은 저장성
페르카®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뿌리혹병의 경감
사용기준 25K – 1포 (100~500평)사용
취급품목 4종복비, 유기질비료(친환경제품), 1등급가공발효계분퇴비, 유황비료
관주, 엽면 시비용 맥반석, 게르마늄, 황금수, 흙향기
밭, 과수, 골프장, 목초지, 전작물 사용 농경비 30% 절감 + α
연작장애, 토양소독, 석회투입 NO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심의번호 2018-GN1-11-0011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원 :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청 제주대 와이덱스 보청기 CGV 화북 광양 사거리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제)州(주)리모델링
辛(신)一(일)祚(조)
누수탐지·방수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도어문 / 대문 교체
붙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몰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는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